

헤지(hedge)의 통역 연구: 기업실적발표 사례를 중심으로

최 문 선
(이화여대)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현상의 하나인 헤지(hedge)의 통역 양상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헤지(hedge) 혹은 헤징(hedging)의 사전적 의미는 ‘장벽, 한계, 방어, 혹은 보호나 방어의 행위 혹은 그 수단’¹⁾으로서, 일반적으로 가능성, 개연성, 불확실성을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저자가 자신의 진술에 대한 책무(commitment)를 약화시키는 언어적 기제를 통칭한다(Peterlin 2010: 174). 다시 말해 헤지는 진술 내용이나 화자의 태도에 비확정성을 부여하거나, 발화의 효과를 완화(Hübler 1983)하고, 공손성을 표현(Brown & Levinson 1987)하는 언어적 표지로서 실제 언어 사용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어 담화나 문어 텍스트에 사용된 헤지의 해석은 담화 참여자나 독자가 의도된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정의 (Piotti 2009: 15에서 재인용).

헤지는 통역 과정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통역은 인지적 포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으로서, 통역사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추출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통역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핵심 메시지에 부수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헤지의 통역이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Magnifico & Defrancq 2017: 26). 명제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역사가 메시지 전달 시 처리의 우선 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 통역 과정에서 원문에 사용된 헤지가 생략 혹은 추가될 때 연사의 의도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중대성에 따라 의사소통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Altman 1994: 28-30, Magnifico & Defrancq 2017: 25에서 재인용).

헤지는 텍스트나 발화를 청자나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주장과 진술들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장치로서 언어 사용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한다(Piotti 2009: 22). 즉 화용적 의미를 지니는 헤지는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말하는 대인관계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²⁾를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일례로 어떠한 내용이 예측이나 예상, 개인적 의견임을 표시하여 객관적 사실로 주장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헤지를 사용한 경우 이를 적절히 통역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전달하면 주관적 의견이 객관적 사실로 오해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객관적 사실로의 변경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을 통역사에게 물을 수도 있다. 이처럼 헤지의 통역은 통역 과정의 과도한 부하로 인해 가장 먼저 생략되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는 요소이나, 때로는 사실관계 오류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통역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확산되고 통역을 통한 의사소통 경험이 확대되면서 통역에 요구되는 품질의 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는 점 역시 헤지의 통역을 고찰할 필요성을 더해 준다. 과거의 통역 사용자가 최소한의 핵심 메시지의 전달에 만족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미세한 뉘앙스까지 정확히, 빠짐없이 전달받기 원하는 기대치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대조언어학 연구를 통해 언어별로 헤지의 사용 빈도, 분포, 기능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된 바(Peterlin 2010: 171), 한국어와 영어 역시 상이한 언어 체계로서 헤지의 형태나 유형, 분포가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헤지의 번역(언어간 전이로서의 의미)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통역이라는 상황

2) Halliday와 Matthiessen(2014: 30) 참조.

이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헤지의 통역 양상은 학문적 고찰의 가치가 있다.

헤지 연구의 역사는 길지만 한국어 대상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또한 헤지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대부분 학술논문인 문어 텍스트의 헤지 현상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텍스트 장르 혹은 담화 유형에서 나타나는 헤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1, L2 화자의 헤지 사용 능력을 비교한 연구를 통해 L2 화자의 헤지에 대한 이해와 사용 능력이 L1 화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김진석 2008 등)를 볼 때 헤지에 대한 이해는 모국어 외의 언어로 작업해야 하는 통역사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영 순차통역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어 원문에 포함된 헤지의 기능을 살펴보고 이러한 헤지의 기능이 영어 통역 결과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함으로써 헤지의 통역 양상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헤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출현 사례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실적발표 담화와 이에 대한 순차통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실적발표³⁾란 기업의 분기별 재무성과 발표 시점에 맞추어 기관 및 개인투자자, 증권 애널리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이다. 보통 컨퍼런스콜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일부 기업들은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거나 사후적으로 기업 웹사이트의 투자자정보(IR) 섹션에 게시하고 있다⁴⁾. 실적발표에서 기업의 최대 목표는 성공적 실적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기업 실적에 대한 비합리적인 우려를 잠재움으로써 공정한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달하는 기업 정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 등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상에 제시된 숫자 이면에 담긴 사업의 성격, 장기 전략, 비재무적 정보 등 합리적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유도해 내하고자 한다(Laskin 2010: 20).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의 체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직설적으로 질문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실적발표

3) <https://www.investopedia.com/ask/answers/04/052104.asp> 참조.

4) 2017년 4월 현재 KOSPI 50대 기업의 IR 웹사이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6개 기업이 순차통역으로 실적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는 향후 실적 전망과 관련된 다양한 예측이 담겨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정보의 비확정성을 전달하고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책무를 약화시키는 표현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 상황적 특징은 담화 참여자들로 하여금 헤지를 하나의 언어 전략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만한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헤지의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헤지 연구를 위한 풍부한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헤지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위상을 점검하고 연구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2.1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헤지 연구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 본다. 다음으로 2.2에서는 통역의 맥락에서 헤지 현상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구어를 통한 이언어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헤지 현상이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2.1 헤지 연구의 흐름

헤지(hedge)는 헤지 표현, 울타리 표현, 울타리어, 헤지, 헛지, 완화표현, 완충장치, 완화장치 등 다양한 술어로 번역, 지칭되고 있으며(김강희 2017; 박미영 2016) 개념, 정의, 분류 역시 학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헤지를 학술적 연구 대상으로 처음 논한 Lakoff(1972: 195)는 영어의 ‘rather’, ‘largely’, ‘in a manner of speaking’, ‘very’ 등과 같이 어휘와 구의 논리적 자질을 논하며 대상의 개념을 ‘더 혹은 덜 모호하게 만드는(to make things fuzzier or less fuzzy)’ 표현이 헤지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Brown과 Levinson(1987) 역시 Lakoff와 같은 맥락에서 헤지를 대상의 범주를 약화시키는 표현(detensifier)과 강화시키는 표현(intensifier)의 양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으나, 통상 헤지라는 용어는 전자를 지칭한다(Markkanen & Schröder 1997: 4). 헤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진술을 청자가 더 쉽게 수용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청자의 승인(ratification)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Markkanen & Schröder 1989: 177).

Lakoff에 의해 ‘범주성의 완화’라는 차원에서 헤지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화용론적 관점에서 담화에서의 헤지 사용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헤지는 공손성(Brown & Levinson 1987), 발화의 수행력 약화(Fraser 1975), 화자의 체면 위협 감소 및 화자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자기 방어적 수단(Prince, Bosk & Frader 1982),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비확정성 전략(Hübler 1983) 등을 특징으로 한다(박미영 2016 재인용). 이후 학술텍스트에서의 헤지 사용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Hyland(1998: 1)는 헤지를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완전한 확증(commitment)의 부재, 혹은 그러한 확증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헤지는 어휘적 차원이 아닌 담화적 차원의 전략과 수단으로서 다양한 맥락 내에서 텍스트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헤지 범주를 결정하고 목록을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박미영 2016: 13-14)⁵⁾.

1990년대 이후 문어 텍스트, 특히 학술 텍스트의 헤지 사용에 많은 학술적 관심이 집중되었다(신명선 2006: 156-157). 대표적으로 Hyland(1998)가 학술 목적의 영어 글쓰기에서의 헤지 표현 연구를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학술 텍스트에서의 헤지 표현과 기능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어 학술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헤지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신명선(2006)은 국어학 학술논문 서론 약 160여쪽에 드러난 헤지 표현의 사용 양상과 사용 의미를 연구하였다. 그는 헤지란 명제 내용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거나 수행성을 약화시키는 표현이며 모호성, 공손성, 양태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나타나는 헤지의 출현 양상을 가능성과 추측, 일반화 방지, 드러내기-숨기기, 한정, 전제화 함축(부정표현), 수행성 약화의 총 여섯 가지 범주로 고찰하였다. 객관적 논증 양식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술논문에서 왜 모호성을 증가시키는 헤지 사용이 빈번한가를 놓고 신명선은 ‘공손성’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전략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논문에서 헤지를 제거하고 읽어도 내용 의

5) 예를 들어 가장 복잡하고 세밀한 헤지 분류를 시도한 Caffi(2007)의 연구에서 ‘bush (덤불)’이라 지칭되는 헤지는 Prince, Bosk와 Frader(1982)의 ‘approximators(근사자)’에 해당하고(Mihatsch 2013: 1), Hübler(1983)의 분류 기준 하에서는 ‘understatement (과소진술)’에 해당한다(박미영 2016:15).

미에는 무리가 없으며 헤지를 매우 전략적인 언어 사용의 예로 보았다.

이준호(2012)는 인문, 사회, 자연 분야의 학술논문 22,000어절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는 동사와 종결어미에 의한 헤지 표현이 가장 많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교육을 위한 한국어 헤지 목록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박미영(2016) 역시 인문, 자연 계열 학술 텍스트의 헤지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말뭉치 기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전의 헤지 연구들에 비해 분석 자료의 양이 극적으로 늘어났다는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 인문계 학술논문의 헤지 사용 빈도가 자연계에 비해 높았고, 빈도가 높은 헤지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어 구어 대상의 헤지 연구도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화자와 청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주장에 대한 설득 등 화자가 지니는 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언어 수단으로서의 헤지 사용을 부분적으로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은미 2014; 이찬규, 노석영 2012 등).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구어의 헤지를 다룬 김강희(2017)는 한보 사건 청문회 담화 말뭉치의 헤지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진실의 규명’이라는 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문회 참여 발화자들이 사용하는 어말어미 헤지의 사용 양상을 밝혔다. Yoon(2016)은 약17시간 분량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구어에서 나타나는 헤지를 분류하고 화용언어학,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헤지 연구를 위한 헤지의 판정에 있어 특정 어휘나 표현 등 고정된 언어적 형태보다는 사용된 문맥 내에서 헤지의 기능이 수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문맥상 헤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휘와 표현, 즉 헤지 표면형을 제시하였다. 아래 표1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어와 영어 헤지 표면형 목록이다.

〈표 1〉 선행연구의 헤지 표면형 목록

문헌	헤지 표면형
신명선 (2006)	-수, -겠-, 아마도, 어쩌면, 듯하다 등 (가능성과 추측), -중의 하나, 한, 일종의 (일반화 방지), 생각하다, 보다/보인다, 판단된다 등의 인식동사, 알려져 있다, 평가해 왔다. 흔히-(주체화, 객체화), 거의, 주로, 크게, 비교적, 깊이 있게, 그리, 다소 등 (한정), 부인할 수 없다, 많지 않다 등 (부정 표현), 곤란하다, 무리가 있다, 필요하다, 우려가 있다 (수행성 약화)
이준호 (2012)	보다, 보이다, 알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생각하다, 예상하다, 이해하다, 파악하다, 판단하다, 분석하다, 고려하다, 설명하다, 간주하다, 평가하다(동사 중심 표현), 가능하다, 필요하다, 적합하다 등 (형용사 중심 표현), 의미, 가능성, 필요성 등 (명사 중심 표현)
Yoon (2016)	좀, 뭐, 왜, 아니, 있잖아요, 저/저기, 이제/인제, 막, 참,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그래갖고 (담화표지), -잖아요, -는데요, -거든요, -더라고요, -나 보/-겠지요, -네요, -데요 (상호작용적 어말어미), -것 같-, -지 모르-, -듯 하-, -나 보-, -아/어도 되-, -어/아 주- (조동사), -라든지, -요 (접사), 아마도, 약간, 혹시 등 (부사), -겠- (접미사), -어/아 지고/지구, -어/아 갖고/갖구 (헤지 구), 주절 생략, 조건문, 부가의문문, 비인칭화 등의 통사적 헤지
김강희 (2017)	-고요(덧붙여 진술, 완곡하게 부정), -거든요(근거 제시, 요점지적 혹은 정정), -는데요(청자의 반응 유도)
Lakoff (1973)	sort of, kind of, loosely speaking, roughly, pretty, rather, mostly, technically, in essence, essentially, as it were, in a sense, in a real sense, in a way, so to say, practically, actually 등
Hyland (1998)	believe, suggest, propose, speculate, appear, seem 등 (인식동사), quite, usually, normally, partially, slightly, almost, likely, probabaly, approximately 등 (부사), must, should, ought to, can/could, may/might, shall, would(양태조동사) 등
Boncea (2013)	may/might, can/could, should, would(양태조동사), evaluate, assume, doubt, seem, appear, believe, understand, estimate 등 (양태동사), possible, probable(형용사), possibility, probability (명사), possibly, practically, virtually, actually ⁶⁾ 등(부사), somewhat, a lot, roughly, little, approximately 등(근사치 표현)

6) 'actually'의 헤지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Meyer와 Pawlack(2010: 87-89)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2.2 헤지의 통역

통역 연구 중 헤지에 대한 논의는 법정 통역 연구(Berg-Seligson 1990; Hale 2004; Mason 2008)에서 찾아볼 수 있다(Magnifico & Defrancq 2017:25-26 재 인용). 이들 연구는 공손함의 표현이나 호칭 등을 포함한 화용적 표지로서의 헤지를 법정 통역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는데, 통역사가 원문에 없는 헤지를 추가할 경우 연사가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생략할 경우 발화 내용의 함축이 변화하여 배심원이 이를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Magnifico & Defrancq 2017: 25). 이러한 연구 결과는 법정 통역이라는 세팅에서 헤지의 정확한 통역이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방증한다. 또한 통역사는 효과의 증가성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원문의 헤지를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통역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Meyer와 Pawlack(2010)은 브라질 포르투갈어에서 독어로 통역된 자료(CoSi corpus)에서 고유명사의 통역과 완화표지(mitigator)의 추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역사들이 원문 발화가 단언적이고 언어적 헤지 유발요인이 없으며 문법적, 문체적으로 완벽한 대안 표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sort of’, ‘one or other of’, ‘practically’, ‘actually’, ‘basically speaking’ 등의 완화표지를 추가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역사의 주관적 어조가 투영되면서 원문의 명제적 내용이 변화하고 원문 주장의 정당성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Meyer와 Pawlack은 그 이유를 개인적인 스타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 외에도 대체로 청중이 낯설게 느끼거나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 판단한 진술을 완화하는 경향에 있다고 해석하였다.

Magnifico와 Degranq(2017)는 동시통역에서 헤지가 통역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특히 통역사 성별에 따라 헤지의 통역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유럽의회 동시통역 코퍼스인 EPICG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동시통역에서의 정보처리 부담으로 인해 ST보다 TT에서 헤지가 적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오히려 통역에서 헤지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연사의 체면위협행위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둘째, 인지 부하로 통역 품질이 저하될 때 통역 사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듯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통역사 성별에 따른 헤지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 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 통역사가 헤지를 더 활발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정부의 기자회견 순차통역 코퍼스인 CEPCPCI를 분석한 Pan과 Zheng(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 통역사들이 헤지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역사 성별에 따른 헤지 사용을 연구하는 데에는 통역언어나 통역사 개인 특징 등 여타 변수의 영향이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헤지의 통역과 관련된 연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어를 통역 언어로 고찰한 헤지의 통역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에서 논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통역 결과물에서 헤지가 추가된 사례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거나 특히 성별에 따른 헤지 사용 경향을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출발어로 하고 영어를 도착어로 하는 통역을 대상으로 하여 통역 과정에서 보존되는 헤지와 제거되는 헤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

3.1 연구 대상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는 기업의 실적발표 공개자료를 찾기 위해 상장기업으로서 기업실적 공개 의무를 지고 외국인 대상의 IR 행사를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KOSPI 50대 기업의 웹사이트를 먼저 조사하였다. 동시에 인터넷 포털 키워드 검색(‘통역’, ‘IR’, ‘실적발표’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을 통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는 실적발표 자료를 탐색하였다.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공개되어 있는 음성 자료 중 음질이 좋지 않아 청취나 전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17년에 이루어진 한 게임개발사의 1분기 실적발표 담화⁷⁾를 본 연구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실적발표는 해당 분기의 매출과 손익을 보고하는 실적 프리젠테이션과 질

7) 출처: <http://kr.ncsoft.com/korean/ir/earnings.aspx>

의응답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의응답 부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실적 프리젠테이션은 문서자료로 대체되어 아예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통역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전에 통역사가 원고를 제공받아 완벽한 번역을 준비하여 회의 당일 낭독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따라서 통역사를 통해 전달되기는 하나 매우 문어적이며 사전계획성이 매우 높은 담화로서 번역문의 낭독에 오히려 더 가깝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계획성이 낮아 구어적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실적발표의 질의응답 부분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질의응답 중 질문 순서를 정리해주는 교환원의 멘트나 사회자의 진행발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실적발표 순차통역 담화는 한영 통역을 통해 진행된 컨퍼런스콜 형태로서 질의응답만으로 구성된 47분38초 분량의 말뭉치이다. 전사 결과 한국어 약 6,990자, 영어 약 4,290단어의 분량이었다. 담화 참여자는 기업의 IR 담당자(재무이사 및 각 사업부문 담당자), 한영 전문통역사, 투자자(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다. 기업 측과 통역사가 한 공간에 위치하고 대화 참여자들 전체에게 공개되는 전화 통화를 통해 개별 투자자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2 연구 절차

헤지의 통역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ST(한국어)의 헤지를 조사하였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나 실제 언어 자료에서 헤지의 사용을 확인하고 헤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판단의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헤지를 언어적 현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헤지가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헤지가 주어진 맥락이나 화맥 내에서 대체로 어떠한 어휘적, 문법적 표면형으로 나타나는지 제시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의 문헌조사 결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어 헤지의 문법적 표면형(신명선 2006; 이준호 2012; 김강희 2017; Yoon 2016)을 중심으로 ST 전사문에 나타나는 헤지 후보를 검색하였다. 2장에서 제시한 표1의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어 헤지 후보

를 추출한 후 연구자가 음성 파일을 들으며 해당 부분이 화맥상 헤지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ST의 헤지가 수행한 기능별 분류를 함께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ST의 헤지에 대응하는 TT의 통역문(영어)을 검토한 후 ST의 헤지 기능이 보존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헤지의 통역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원문에 사용된 헤지의 기능이 통역문에서 유지된 경우(헤지 기능 유지), 둘째, 헤지의 기능이 소실된 경우(헤지 기능 소실), 셋째, 원문의 해당 내용 자체가 통역되지 않은 경우(원문 내용 생략)이다. TT에서의 헤지 기능 보존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도착어인 영어의 헤지 표면형(Lakoff 1973: 472; Hyland 1998:102-155; Boncea 2013)을 참조하였다(표1 참조).

4. 결과

4.1 ST의 헤지 빈도 및 유형

한국어 헤지 표면형(표1)을 기준으로 ST상에서 일차적으로 헤지 후보 표현을 추출한 결과 헤지 후보는 총 29개(어종 기준), 출현 빈도는 총 210회(어휘 기준)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화맥을 고려하여 헤지 기능 수행 여부를 판단한 결과 실제 헤지의 기능을 수행한 표현은 117회 출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헤지 표면형 중 가장 많은 빈도(47회)를 나타낸 ‘좀’의 경우 중요성의 약화(구종남 1998)나 불확실한 단정과 부정적 평가의 약화 등과 같은 약화 기능(송인성, 신지영 2014)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한 경우만 분석에 포함하였고, 화자가 다음 발화할 단어나 내용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 벌기나 주저어의 형태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⁸⁾. 또한 수치의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불확정

8) 이렇게 분류된 문장 중 투자자 질문이 이루어진 4개 문장(‘...좀 궁금하구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에서 ‘좀’이 공손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본고

성을 표현하는 ‘-정도’라는 표현의 경우 실제 규모나 분량을 질문하는 의문사(‘어느 정도(how much)’)로 쓰인 경우 역시 헤지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헤지가 클러스터링(clustering)되어 등장하는 경우 동일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집합적으로 1회로 계수하였다. 헤지 선행연구(김진석 2008; Hyland 1998: 150-153)에서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자료에서도 여러 개의 헤지가 집중적으로 뭉쳐서 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뭐 비슷한 시점에 만약에 된다면 뭐 이게 뭐 전략적으로 좀 서로에게 좀 뭐 좀 협의를 통해서 어 좀 이렇게 출시 타이밍 같은 것도 서로 인제 양사가 좀 조정을 하는 건지 어떤 차별화가 있는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분석한 결과 한국어 문장 기준으로 거의 모든 문장)에서 헤지로 판단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헤지의 사용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났다.

117회 출현한 원문의 헤지를 수행 기능별로 분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어떤 진술에 대하여 그 뉘앙스를 약화하여 완화하거나 진술이 표현하는 세기나 강도를 한정하는 경우였다. 둘째, 단언을 피하고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불확실한 추측임을 표현하는 경우였다. 셋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주관적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넷째, 객관적인 정량적인 정보를 근사치로 제시하는 경우였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를 각각 완화 및 한정, 가능성과 추측, 모호성의 표현, 수량의 근사치화라고 명명하였다. ST에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표현의 예를 들면 다음 표 2와 같다.

에는 이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었음을 밝힌다.

- 9) 일부 한국어 원문 문장의 경우 사실상 한 문장이 여러 문장을 내포하고 있어 전사 시 거의 한 단락에 이르는 분량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진술임을 밝힌다.

〈표 2〉 한국어 원문에서 발견된 헤지(예시)

기능 (출현빈도)	사례
완화 및 한정 (41회)	‘좀 어렵습니다’, ‘조금 충격이긴 한데요’ ‘사실’, ‘변화는 크지 않다’ ‘~로 보이긴 합니다’ ‘어떤 이탈 모습’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과 추측 (33회)	‘-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도’ ‘저희 예상으로는’, ‘~로 예상합니다’ ‘~인 것 같습니다’,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호성의 표현 (31회)	‘~할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 ‘전통적인 어떤’,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개발 계획 뭐 출시 일정 이런’ ‘새롭게 퍼블리싱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수량의 근사치화 (12회)	‘대략’, ‘한’ ‘(뽀10) 분기별 3백억이나 2백억이나’ ‘뽀 전체 인건비 비중으로 봤을 때’ ‘한 2월 정도까지는’ ‘거의 케파가 맥스에 다달해 가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ST에 포함된 헤지는 완화와 한정(41회), 가능성과 추측(33회), 모호성의 표현(31회)의 세 기능이 비슷한 비중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적발표 담화에서 기업은 향후 투자에 긍정적인 정보를 부각하고 부정적인 정보를 완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미래 계획이나 예상에 대해서는 비확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 양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질문자인 투자자 역시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나 확인이 필요할 때 답변자인 기업 담당자의 체면을 위협하

10) ‘뽀’는 불확실한 예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더라도 그 예가 화자의 확신이 없을 때 사용된다(이정애 2002: 222).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뽀’가 수치 관련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경우 수량의 근사치화 기능을 수행한 헤지로 분류하였다.

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야 하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서 완화, 가능성, 모호성의 표현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2 TT에 나타난 헤지의 통역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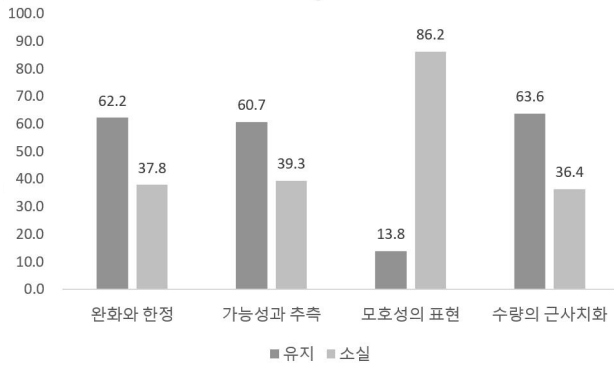
ST에서 사용된 헤지의 통역을 TT에서 확인하여 헤지의 통역 양상을 헤지 기능 유지, 헤지 기능 소실, 원문 내용 생략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3과 같다.

〈표 3〉 TT에 나타난 헤지의 통역 양상

헤지 기능	기능 유지	기능 소실	내용 생략
완화 및 한정	23	14	4
가능성과 추측	17	11	5
모호성의 표현	4	25	2
수량의 근사치화	7	4	1
계	51	54	12

*단위: 회

표 3의 빈도 집계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원문의 헤지 포함 부분이 아예 통역되지 않은 ‘내용 생략’을 제외하면 원문의 헤지 기능이 유지된 경우와 소실된 경우가 대략 반반(51회, 55회)을 차지하였다. 원문 내용 생략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언어정보처리 상의 어려움이나 인지 부하, 시간 부족 등의 제약으로 인해 통역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누락된 경우이다. 일례로 원문 발화의 길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 두 문장으로 구성된 발화를 통역할 때에는 모든 요소를 전달하는 것이 수월하나, 원문 발화가 길어질 경우 노트나 기억이 어려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혹은 통역사가 적용한 요약 전략에 의해 앞, 뒤 내용에 통합되었을 수도 있고, 통역사의 판단에 의한 의도적인 내용 생략이 이루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헤지의 통역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생략’ 부분은 고찰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찰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문 내용이 생략된 부분을 제외하고 헤지의 기능이 유지 혹은 소실된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TT 상 헤지의 기능 유지와 소실의 비율 (단위:%)

그림 1을 보면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의 통역 양상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가지 범주의 헤지 기능이 유지된 경우가 평균 약 62%, 기능이 소실된 경우가 약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역사는 대략 60% 정도의 비율로 ST의 헤지를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TT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모호성의 표현 기능을 수행하는 헤지는 13.8%만 유지되고 86.2%는 소실되어 압도적으로 소실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다음에서는 헤지의 기능 유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유형(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과 헤지의 기능 소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유형(모호성의 표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4.2.1 헤지의 기능 유지 우세: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

앞서 표3에서 볼 수 있었듯이 ST에 포함되었던 헤지 중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 기능을 표현하기 유형은 대체로 통역 과정에서도 기능이 유지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완화 및 한정 기능의 헤징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통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ST	TT
1	어 좋은 분위기에 사실 1분기 실적은 조금 충격이긴 한데요.	With regard to the first quarter result I do believe that they are a bit surprising.
2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별 게임에 어떤 그 런칭이나 성공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 것들은 뭐 전체 인건비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To talk about the second question which is about the incentives, with regard to the incentive that we actually pay out for a single game that is very successful or very successful launch, in actuality that number is not very significant.
3	어 지금 기존에 있는 리니지 원 PC게임 유저가 있겠고 또 지금은 안하지만 옛날 올드유저가 있겠죠.	for example there could be some existing lineage one players who are actually enjoying the PC online game and then there could be some people that are migrating from that.

문장1은 질문자가 기업의 1분기 실적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음을 표현하는 부분인데 ‘조금’이라는 부사를 추가하여 ‘충격’의 정도를 약화하였다. 이에 더하여 ‘~긴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전술한 내용과 반대되는, 즉 긍정적인 내용이 뒤에 이어질 가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실적이 ‘충격적이었음’의 정도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헤지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충격적’일 정도의 실적 하락이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역 역시 ‘a bit’라는 헤지를 사용함으로써 충격의 정도를 완화하여 전달하였고 원문의 헤지 기능이 유지되었다.

문장2는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증가’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 대한 기업의 답변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라는 부정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중이 ‘작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나 절대 ‘크지는 않다’는 점 역시 강조하여 부정적 느낌을 한정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역에서도 ‘in actuality’, ‘not very significant’라고 적절히 해정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크다’, ‘작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significant(유의한)’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뉘앙스를 약화시키고자 한 원문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전달한 것을 볼 수 있다.

문장3은 질문자가 ‘-겠-’이라는 선어말어미 헤지를 사용하여 발화 내용이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며 얼마든지 다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는 내용상 게임 사용자(‘유저’)에 대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질문자는 헤징을 통해 ‘반드시 이런 분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분류를 해본다면’이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통역사는 ‘could’라는 양상조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원문 헤지의 가능성, 추측이라는 기능을 유지하였다.

수량의 근사치가 표현된 부분 역시 ‘대략 한 20% 정도’ (around 20%), ‘한 8백억 내외 정도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can we expect the second quarter performance to return to this 80 billion or so level?), ‘뭘 분기별 뭘 3백억이나 2백억이나’ (in the range of 20 to 30 billion), ‘본사 오피스가 케파가 거의 맥스에 다달해 가고’(right now for our pangyo headquarter office we are almost at maximum capacity here) 등 통역사는 그에 대응하는 TL의 표현을 활용하여 수량의 근사치화 기능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헤지의 기능이 대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 세 가지 유형, 즉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의 경우에도 평균 약 37%의 헤지가 통역 과정에서 소실되었다. 사례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ST	TT
4	첫 번째 질문은 저희 이번에 인건비가 인센티브로 좀 증가를 많이 한 걸로 보이는데	I do believe that labor cost <u>has increased significantly.</u>
5	다만 인제 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성과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어 쉽지 않은 어 한 해였지만	However for last year in terms of overall situation, we actually deeme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overall was <u>very challenging.</u>
6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 어 딱 계획이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so though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experimented with we <u>do not have any plans</u> to make any changes as of this time.

문장4에서 질문자는 비용(인건비) 증가라는 기업측에 부정적인 뉴스를 확인하고 관련된 정보를 얻어내야 하므로 최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임으로써 답

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좀...많이...걸로 보이는데’라는 표현을 통해 발화를 해징하였다. 그러나 통역에서는 ‘has increased significantly’라고 단언적으로 발화함으로써 해지의 기능이 수행되지 않았다.

문장5에서 ‘어떤 쉽지 않은 한 해’라는 표현은 실상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음을 의미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단언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이 되므로 ‘쉽지 않은’이라는 부정표현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자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역사는 ‘very challenging’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부정표현을 통한 해징을 제거하고 ‘상당히 어려웠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문장6 역시 계획이 없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완화하고자 ‘딱(히) 없다’는 표현으로 해징을 하였으나 통역에서는 단정적으로 ‘do not have any plans’라고 표현되었다.

4.2.2 해지의 기능 소실 우세: 모호성의 표현

모호성의 표현이라는 해지 기능은 통역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많이(86.2%) 소실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ST	TT
7	...리니지 엠이 곧 출시되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인제 전통적인 MMORPG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in terms of lineage M what we have adopted here is a more traditional and classical MMORPG game play style and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the contents style is also more closer to the more traditional style of online PC game.
8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또 계속적으로 어떤 그 리니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콘텐츠층, 어, 이런 층당이라든지 여러 그런 업데이트들에 대한 준비를 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to take a longer-term view on the situation and try to actually continue to create this sustainable leading for lineage one by actually upgrading the contents and also beefing up contents so that we can have longer term sustainability.
9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어떤 그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for this year again we, in terms of our business targets, have set very high standards and very aggressive targets for our business.

10	현재는 그 프로젝트의 어떤 리더십 부분을 지금 교체를 한 상태고	for example for the project leadership there has been some changes in <u>that leadership team.</u>
11	...이전까지 말씀해주셨던 타이틀 말고도 새롭게 퍼블리싱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addition to the title that have already been mentioned to the market, if there are any additional games that would be published or are in the <u>pipeline...</u>
12	다음주에 저희들이 그 미디어 대상의 어떤 이벤트를 합니다	next week we do have a <u>media event</u> that we are planning

문장7에서 ‘어떤 그런11)’이라는 표현은 청자가 화맥과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주관적인 판단을 내려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이에 더하여 게임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말에 비해 게임의 ‘시스템’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대로 ‘system’이라고 옮길 경우 지칭하는 바가 극히 모호하여 정보성 있는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역사 역시 이러한 모호성을 인지한 것인지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보인 ‘play style’을 먼저 통역한 후,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contents (style)’로 해석, 명시화하였다. 해당 부분에서 ‘content, the contents’와 같이 발화수정이 일어난 것은 통역사가 의식적으로 모호성을 제거하고 정보성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라고 판단된다.

문장8은 발화자가 콘텐츠 담당이나 ‘이런’,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명확한 범위 한정 없이 안 되어 그대로 전달할 경우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궁금해 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어렵다. 이에 통역사는 ‘이런’, ‘그런’, ‘...부분’과 같은 모호성 해지를 모두 제거하고 간결하게 ‘upgrading’과 ‘beefing up’이라고 정리해 주었다. 문장 9~12 역시 화자가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효과의 해징이 발견되는데, 통역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상술하거나(‘어그레시브한 어떤 그 목표’ → ‘very high standards and very aggressive targets’), 명시화하거나(‘어떤 리더십 부분’ → ‘that leadership team’),

11) ‘어떤 그런’, ‘어떤’이라는 표현은 수식 대상의 범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Lakoff(1972), Brown과 Levinson(1987)의 헤지 정의에 의거하여 헤지로 판단하였다.

헤지 표현을 제거하고 간결하게 정리(‘새롭게 퍼블리싱하는 그런 모바일 게임 이라던지 그런 파이프라인’ → ‘be published or are in the pipeline’, ‘미디어 대상의 어떤 이벤트’ → ‘a media event’)하는 방식으로 모호성을 제거하였다.

그러나 모호성의 표현이 통역에서 그대로 그 기능이 유지된 경우(13.8%)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13을 살펴보면 ‘조금’, ‘약간’, ‘어떤 그런’이라는 헤지가 중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후행 항목의 대상 범위가 불분명해졌는데, TT에서는 ‘or’를 사용하여 복수의 선택지(‘systematic’ 혹은 ‘structural’)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원문의 불확정성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번호	ST	TT
13	조금 어 예 약간 시스템에 어떤 그런 조금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단순한 어떤 그런 어떤 어 분기별 타겟의 역기조의 영향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그 다시 말해...	So the question that I have is whether this is a systematic issue or structural issue or is it actually due to the quarter on quarter high base effect that we see...

5. 논의

통역의 출발점은 연사의 원발화(ST)이고 그 도착점은 연사의 발화의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통역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헤지의 통역 역시 그 기능이 유지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대상 말뭉치가 기업의 주가 및 전반적인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공유되는 실적발표 담화인 점을 감안할 때 부정적인 정보의 강도를 완화하고 향후 전망에 대한 단언이 아닌 추측과 가능성 등을 표현하는 헤지의 기능이 통역과정에서도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4장에 제시한 분석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통역 말뭉치에서도 역시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근사치화 등 ST의 헤지 기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향(62%)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헤지 기능이 소실된 경우도 상당 부분(38%) 나타났다. 발화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불확정성을 표현하는 등 화자의 의도가 담긴 헤지의 기

능이 잘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헤지 기능이 통역 과정에서 소실되는 경우는 통역사가 해당 헤지 자체를 핵심 메시지에 비해 부수적인 메시지로 판단하여 생략하거나 해당 부분을 통역하는 당시 인지적 부하의 영향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생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gnifico & Defrancq 2017: 25). 예를 들어 가능성과 추측을 표현하는 헤지인 ‘아마’로 표현되는 정보 중 ‘아마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 리니지M이 곧 출시되면은 아시겠지만’ 등은 해당 발화 전체가 통역에서 생략되었다. ‘아마’라는 헤지는 추측의 양태를 표현하는 선어말어미 ‘-겠.’이나 종결어미 ‘-이지만’, ‘-같다/같지 않다’라는 헤지와 공기하는 경향을 보여 원문에서는 화자의 추측, 가능성 암시를 강하게 표현하였으나 통역 과정에서 아예 해당 내용 자체가 생략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모호성의 표현’이라는 기능의 헤징이 이루어진 부분은 통역 과정에서 원문의 모호성 헤징이 제거되는 경우가 대부분 (86.2%)을 차지하였다는 점이다. ‘어떤’, ‘그런’, ‘뭐’ 등의 헤지로 인해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단언하기 어려운 경우 통역사는 구체적으로 상술하거나 명시하거나 헤지를 제거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역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실제 현장의 통역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청자가 명확한 이해가 어렵거나 내용의 정보성이 없다고 느낄 때 이는 원문의 모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통역의 실패라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역사는 원문의 모호성이 연사에 의해 의도된 것일지라도 이를 제거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모호성의 표현에 관여한 헤지의 기능이 소실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말해 질문을 통역할 때에는 답변자가 질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의 모호성 헤지를 제거하여 통역하고, 답변을 통역할 때는 질문자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유용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답변에 포함된 모호성 헤지를 제거하려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즉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적 근사치화의 표현의 경우 연사의 헤지 사용 의도를 우선시한 반면, 모호성의 표현의 경우 통역사의 명확한 메시지 전달 의도가 우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번역에서도 원문 헤지의 ‘생략’이 보다 간결한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채택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신진원 2012: 126).

또한 본 연구 말뭉치에서 관찰된 모호성 해지의 제거는 통번역의 보편소(universals) 중 명시화(explicitation)의 경향을 확인해 주는 단편적인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명시화는 번역 결과물에서 암시적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는 전반적인 경향(Laviosa 1998: 308)을 의미한다. 이는 도착어 표현을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통번역 활동의 근본적인 특징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Klaudy 1998: 83).

마지막으로 해지의 통역에 있어 원문의 해지 기능이 유지 혹은 소실되는 원인에 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즉시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모든 통역의 결과는 통역사의 전략이 적용된 의도적인 의사결정의 결과인지 혹은 인지 부담이나 시간 제약 등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인지의 경계가 모호하다. 많은 경우 회상구술 등의 방법을 통해 통역사 본인의 의사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통역사들조차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대상이 순차통역이었음을 감안하여 동시 통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역사의 의도적 전략 결정이 가능하였다고 전제한다면, 해지의 통역에 있어서의 기능 유지나 제거 결정에 어떠한 원칙이 작용하였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구대상 담화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실적발표 담화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역사는 발화 참여자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원문의 해지를 유지하고, 그리 부정적이지 않거나 중립적인 내용의 경우 통역의 효율성을 위해 원문의 해지를 제거하고 단언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을 수 있다.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의 기능을 수행한 해지가 기능 유지 쪽으로 통역된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 결과가 이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주장의 가능성은 수량의 근사치화의 통역과 관련된 사항에서도 엿볼 수 있다. 본 연구 ST에서 수량의 근사치화 해지는 총 7회 나타났다. 양적으로 극히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향을 읽는 것을 불가능하나, 근사치화 해지가 제거되고 확정적으로 통역된 경우 대부분(4회 중 3회)이 날짜 등 시간적 개념을 표현하는 수치(‘한 한분기 정도에’, ‘한 2월 정도까지는’, ‘뭐 출시 일자는 6월 중순 정도에’)에 관한 항목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외에 근사치 해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모두 비용 증가(인센티브 지급, 고용 인원 증

가)와 관련된 금액이나 수치로서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한 정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역사는 중요한 수치는 최대한 근사치화를 살려서 통역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것으로 간주되는 시기 정보는 통역의 효율성, 명확성을 위해 헤지를 제거하고 통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헤지의 기능 유지와 소실에서 나타는 경향을 볼 때 통역사는 실적발표라는 담화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통역을 하고자 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연구자의 추론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하나의 가설로만 제시될 수 있을 뿐이며, 통역사 인터뷰 등 추가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다.

6. 결론

화자의 진술에 대한 완화기제로서의 헤지는 화자의 의도를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어간 의사소통 과정인 통역 과정에 있어서도 헤지의 적절한 통역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언어 현상으로서 헤지의 통역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담화참여자의 의도적인 헤지 사용이 풍부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실적발표 담화에 대한 한영 순차통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 자료 중 ST에서 발견된 한국어 헤지의 기능은 크게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모호성 표현, 수량의 근사치화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ST 헤지의 통역 결과 원문 자체가 생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원문의 기능이 유지된 비율이 높게 나타난 헤지 기능은 완화와 한정, 가능성과 추측, 수량의 근사치화였다. 반면 ST에서 모호성의 표현 기능으로 분류된 헤지의 경우 대부분이 통역문에서 소실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통역사는 진술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한정하고 확언이 아닌 추측임을 시사하거나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자 하는 원문의 헤지를 통역 결과물에서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어 연사의 의도를 충실히 전달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모호성이 표현된 헤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대부분 통역사의 적극적

인 해석 과정을 통해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거나 명시화하는 등 헤징을 제거하고 통역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연사의 발화에 대한 해석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통역 과정의 근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정보성 있는 내용을 수신하고자 하는 통역 사용자의 담화 참여 목적에 부응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통역 말뭉치에서는 실적발표라는 담화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최대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통역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헤징의 통역 양상이 반드시 통역사의 의도적인 의사결정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많은 경우 통역사 자신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통역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일 경우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도 높아 통역사의 의도 여부는 판단이 무척 어렵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통역사의 의도를 해석한 근거는 본 연구대상이 순차통역이었다는 점에 의존한다는 점을 밝힌다. 순차통역은 동시통역에 비해 시간적 압박이 적으므로 통역 단계에서 통역사가 의도적인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의 강도를 완화하거나 가능성, 추측을 표현하는 헤징에 비하여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거나 모호성을 표현하는 헤징의 경우에는 통역 과정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 보다는 사용자의 이용가능성, 수용성이라는 품질기준이 더욱 우선된다는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모호성 헤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통역사의 의식적이고도 적극적인 개입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모호성 헤징이 더 많이 분포할수록 통역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통역 언어로 고찰한 헤징의 연구 중 첫 사례로서 통역 과정에서 유지되거나 소실되는 헤징의 특징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연구 대상이 된 기업실적발표 말뭉치 사례에 한정된다. 또한 헤징의 판정과 기능 분류에 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자 노력하였으나 헤징 분류와 분석이 연구자 1인에 의해 이루어진 만큼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점 역시 한계점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헤징이라는 언어 현상을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한국어 원문을 대상으로, 통역의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통역언어 방향을 달리하거나 통역문과 비통역문의 헤지 사용 비교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 결과를 보완하고 헤지의 통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구종남 (1998) 「화용표지 ‘좀’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41: 411-434.
- 김강희 (2017) 「헤지 문법 항목으로서의 ‘-고요’, ‘-거든요’, ‘-는데요’ 연구 - 청문회 담화 말뭉치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44: 35-51.
- 김진석 (2008) 「영어 연설문에 나타난 헤지(hedge) 표현」, 『언어』 1: 21-42.
- 노은주 (2014) 「헤지 발화문의 의미」, 『담화와 인지』 21: 51-73.
- 송인성, 신지영 (2014) 「담화표지 {좀}의 기능과 형태·운율적 특성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62: 315-339.
- 박미영 (2016) 『말뭉치 기반 연구 방법을 사용한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헤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명선 (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1.
- 신영주 (2011)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표지 사용 양상 비교」, 『담화와 인지』 18: 63-77.
- 신진원 (2012) 「설득적 텍스트의 헤지 표현(hedging) 번역문제: 뉴스위크 영-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2): 113-136.
- 이은미 (2014) 「한일 양국의 대학생 친구 간 대화에 나타나는 헷지의 사용양상」, 『일본어학연구』 42: 207-223.
- 이정애 (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서울: 도서출판 월인.
- 이준호 (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 269-297.
- 이찬규, 노석영 (2012)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245-286.
- Altman, Janet. (1994) 'Error Analysis in the Teaching of Simultaneous

- Interpretation: A Pilot Study', in Sylvie Lambert & Barbara Moser-Mercer (eds.), *Bridging the Gap: Empirical Research in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25-38.
- Berg-Seligson, Susan (1990) *The Bilingual Courtroom: Court Interpreters in The Judicial Proce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oncea, Irina J. (2013) 'Hedging Patterns Used as Mitigation and Politeness Strategies', *Annals of the University of Craiova* 2: 7-23.
- Brown, Penelope and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Bruce (1975). 'Hedged Performatives', in Peter Cole and Jerry L.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ume 3: Speech Act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187-210.
- Hale, Sandra (2004) *The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liday, M. A. K. and Christian M. I. M. Matthiesse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fourth edi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übler, Axel (1983) *Understatements and Hedges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Hyland, Ken (1998)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Klaudy, Kinga (1988) 'Explicit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104-108.
- Lakoff, George (1972)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in Paul Peranteau, Judith Levi and Gloria Phares (eds.), *Papers from the Eighth Regional Meeting,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LS 8)*, 183-228.
- Lakoff, George (1973) 'Hedges: A Study in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4): 458-508.

- Laskin, Alexander (2010) *Managing Investor Relations: Strategi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New York: Business Expert Press.
- Laviosa, Sara (1998) ‘Universals’,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306-310.
- Mason, Marianne (2008) *Courtroom Interpreting*.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Magnifico, Cédric and Bart Defrancq (2017) ‘Hedges in Conference Interpreting’, *Interpreting* 19(1): 21-46.
- Markkanen, Raija and Hartmut Schröder (1989) ‘Hedging as a Translation Problem in Scientific Texts’, in Christer Laurén and Marianne Nordman (eds.), *Special Language: From Human Thinking to Thinking Machines*, Clevedon/Philadelphia: Multilingual Matters Ltd, 171-179.
- Markkanen, Raija and Hartmut Schröder (1997) ‘Hedging: A Challenge for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is’, in Raija Markkanen and Hartmut Schröder (eds.) *Hedging and Discourse*, Berlin: De Gruyter, 3-20.
- Meyer, Bernd and Birte Pawlack (2010) ‘Mitigating and Being Vague in Interpreter-Mediated Discourse’, in Gunter Kaltenböck, Wiltrud Mihatsch and Stefan Schneide (eds) *New Approaches to Hedging*, Bingley: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76-91.
- Mihatsch, Wiltrud. (2013) ‘Hedges’, in Carol A. Chappelle (ed.), *The Encyclopedia of Applied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Ltd, DOI: 10.1002/9781405198431.wbeal0496.
- Pan, Feng and Bingham Zheng (2017) ‘Gender Difference of Hedging in Interpreting for Chinese Government Press Conferences: A Corpus-based Study’,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8(2): 171-193.
- Piotti, Sonia (2009) *Exploring Corporate Rhetoric in English : Hedging in Company Annual Reports: A Corpus-assisted Analysis*. Milano: EDUCatt.
- Prince, Ellen, Charles Bosk and Joel Frader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in Robert J. Di Pierto (ed.),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Delaware Symposium on Language Studies, Norwood, NJ: Ablex, 83-97.

Yoon, Yeonhee (2016) *Korean Hedges in Spoken Discourse: Sociopragmatic and Pragmalinguistic Perspectives*. Seoul: Korea University Press.

Peterlin, Agnes P. (2010) 'Hedging Devices in Slovene-English Translation: A Corpus-based Study',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9(2): 171-193.

[Abstract]

**Interpreting Hedges from Korean to English:
A Case Study Focusing on an Earnings Conference Call**

Choi, Moonsu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edges in Korean-English consecutive interpreting to find out how the intended functions of hedges used in ST(Korean) are realized in TT(English). A small corpus of consecutive interpreting conducted at an earnings conference call was analyzed. Hedges in ST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into four functions: mitigation and limitation, possibility and assumption, vagueness, and numeric approximation. The analysis showed that over sixty percent of hedges used to indicate mitigation and limitation, possibility and assumption, and numeric approximation were preserved in TT, while a mere thirteen percent of hedges used to indicate vagueness were kept in TT.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vagueness hedges were removed and the items accompanying vagueness hedges in ST were made more explicit. This suggests that hedges ar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function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 ▶ Key Words: hedge, hedging, mitigation, vagueness, consecutive interpreting
- ▶ 키워드: 헤지, 헤징, 완화, 모호성, 순차통역

최문선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조교수

choimoonsun@ewha.ac.kr

관심분야: 통역교육, 통역전략, 통번역연구방법론, 통번역과 기술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1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